

(주)강남, 최첨단 기뢰 탐색함 진수

- 500톤급 금화함 진수식 가져...

우리 나라 역사적 유래가 깊은 강원도 철원군 금화면의 지명을 따서 명명된 배수량 500t급 금화함 진수식이 지난 9월 24일 부산시 소재 (주)강남(대표 이진옥)에서 이양호 합참의장과 해군관계자, 회사 임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건조되던 최첨단 기뢰함은 1986년 (주)강남 자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이래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해사기술연구소 등에서 공동으로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최첨단 장비를 장착, 고도의 성능으로 해군의 대 기뢰전 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평가된다.

기뢰함은 재래 기뢰는 물론 압력기뢰, 음향기뢰, 자기기뢰등의 특수기뢰를 파괴할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또 보강재 없는 단판구조 강화플라스틱(G. R. P)재의 선체로 건조되었다.

실선(實船)충격 시험을 통하여 내충격성이 입증된바 있는 금화함은 앞으로 잔여 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오는 94년 4월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賢)

제3차 유도무기 학술대회 열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제4개발본부 주최로 기체설계 분야의 새로운 기술발전 추세에 대한 연구시야의 증폭, 핵심기술의 능력보강 및 산학연 협동체제의 정착등을 목적으로 제3차 유도무기 학술대회가 9월 16일 각계의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 학술대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黃海雄박사는 환영사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산학연 및 군의 협력관계를 강조하였다.

학술대회는 총 6개분과로 나뉘어 열렸고, 총 참여논문편수는 65편으로 산업계 6편, 학계 47편, 연구계 11편, 군 1편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학술발표장 밖에서는 전시장이 설치되어 4개 방위산업체(두원중공업, 협진단철, 서울엔지니어링, 대신금속)가 관련품목을 전시·소개하였으며, 國科硏에서도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연구내역의 소개와 관련품목들을 전시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賢)

日本 방위간화회 친선 來韓

일본 방위간화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9일의 일정으로 모리도미히사 단장의 14명이 韓·日 양국의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내한하였다.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정수열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방산부문에서도 타분야에서와 같이 점진적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방문단은 기간중 포항제철, 대우중공업, 현대정공을 방문하여 우리 산업 현장을 견학하였다. (賢)



防産·軍需관리학교 (가칭) 설립추진

- 울곡사업요원 전문성 제고 위해

국방 부는 감사원의 울곡 감사결과 울곡담당인력의 전문성 결여라는 지적과 아울러 현재 국방대학원·합참대학·육군군수학교등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산관련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국방 방산·군수관리학교」(가칭)의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역의 경우 인사관리 규정상 순환보직제도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에 장기간 근무할수 없었고, 일반적인 업무 특성상 군사적 전문 식견과 경험, 전략,

전술 이해에 한계가 있어 업무의 전문성 결여가 필연적으로 발생, 사업 추진에 부진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따라서 앞으로 체계적인 학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방방산·군수 관리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군요원 뿐만 아니라 일반 방산업체 종사자들도 일정 기간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군의 전력증강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賢)

「1993~1994국방백서」發刊

國防白書

1993~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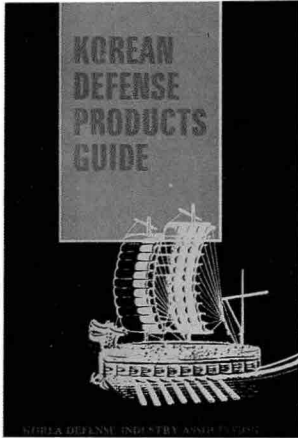
大韓民國
國防部

국방부 는 「93~94 국방백서」를 발간 배포하였는데, 이는 88년 최초 발간 이래 여섯번째로 급변하는 주변 안보 환경과 북한의 군사위협 실상, 자주국방을 위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의 불가피성을 피력하여 함축성있는 내용으로 집약 발간되었다.

현대전의 필수요소인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현대화 사업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비를 점차 늘리고 산·학·연을 연계한 범국가적인 연구개발 협력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방산업체를 기술 중심의 전문화·계열화체제로 정비하고, 방산시설의 민수병행체제를 구축하며, 선진 핵심 기술 획득을 위해 획득소요 기술, 협상능력을 강화하고 도입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병행·추진·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賢)

「KOREAN DEFENSE PRODUCTS GUIDE」發刊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물자 수출증대 및 해외홍보를 위하여 오랜 숙원사업이던 방산물자 종합카다로그(Korean Defense Products Guide)를 발간하였다.

이 카다로그에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방산물자를 총망라하여 품목별·생산업체별로 분류, 제품의 제원 및 특성과 원색사진을 실었으며 생산업체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연락처, 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업체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총 196면의 영문으로 인쇄된 국배판으로, 내용이 충실하고, 특정제품이나 업체, 품목별로 찾아보기에 편리하며, 휴대가 간편하게 제작되어 향후 우리 방산물자의 해외홍보용으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賢)
(자료문의 : 해외사업부, 716-0112)

아에로스빠시알산의 미사일 세계

프랑스 국영 항공-우주업체인 Aerospatiale은 지난 수 십년동안 유럽내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생산품의 다양화와 고객층대를 이룩하여 왔다.

1980년대에는 국제협력관계를 통한 매출이 총매출액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1990년 지대함/함대함 EXOCET MM40 미사일 발사장면

대에 이르러 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등 각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Aerospatiale의 미사일-요격-미사일 AS-TER, 이미 실전배치 사용중인 EXOCET를 비롯한 Aerospatiale의 미사일 세계를 간략히 알아본다.

Aerospatiale의 전술미사일은 전세계 63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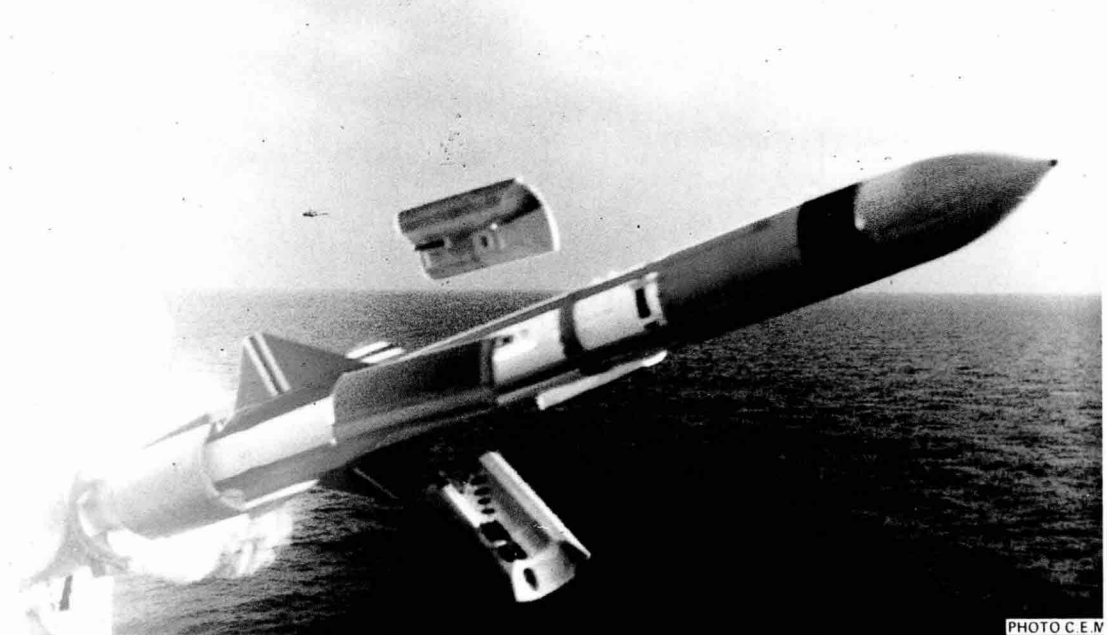


PHOTO C.E.M



최초의 단거리 대전차 미사일 ERYX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Aerospatiale 자체의 대전차 미사일 'ERYX'를 비롯하여 Aerospatiale과 독일의 MBB가 협력하여 설립한 EUROMISSILE이 생산하는 대전차 미사일 'MILAN'과 'HOT'가 있으며, 저고도 침투 항공기에 대한 방어임무를 목적으로 제작된 'ROLAND' 지대공미사일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함 미사일인 'EXOCET' 미사일의 개발로 해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연 Aerospatiale은 1996년에 실전배치될 예정인 초음속 대함미사일 ANS도 개발중이다.

프랑스를 포함하여 세계의 몇몇 공군은 최근에 'AS30L' 정밀 레이저 유도 공대지 미사일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걸프전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1992년 10월에 F-16 전투기에서의 발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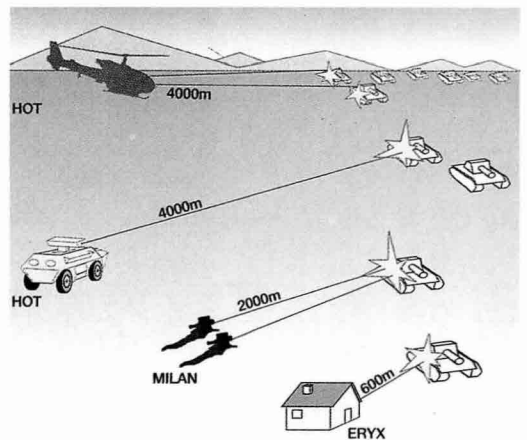
현재 Aerospatiale은 또한 주요한 유럽의 전력무기 체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첫째는, EDMG에서 독일의 DASA, 영국의 British Aerospace와 협력하여 진행중인 TRIGAT 제3세대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의 개발이다.

둘째는, Aerospatiale의 ASTER미사일을 이용한 미래의 영공방어 및 미사일 요격미사일체계의 개발인데, 이는 EUROSAM을 통하여 프



F16에 장착된 AS-30L 레이저 유도 미사일



각 대전차 미사일의 사정거리 비교

랑스의 Thompson-CSF, 이탈리아의 Alenia 그리고 스페인과 영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셋째로, Aerospatiale은 다연발 로켓시스템인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의 생산을 위해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